



### 남원시, 벼 병해충 항공 공동 방제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벼 주요 병해충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7~9월 2026년 벼 병해충 항공(공중) 방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제는 남원 관내 벼 재배지역 중 항공방제가 가능한 약 21,100ha를 대상으로 총 3회 실시되며, 벼멸구, 흑명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등 주요 병해충을 작기에 방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협 방제단을 활용한 공동방제와 농업인 개별 자가방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게 농업인 여건에 맞는 맞춤형 방제를 추진 계획이다.

4개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지역단위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방제 효율을 높이고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여, 고령 농과 영세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고창소방서, 호원대 응급구조과 구급차 동승실습 운영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호원대 응급구조과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구급차 동승실습을 운영하며 예비 응급구조사의 현장 대응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은 응급의료 현장 경험을 통해 예비 응급구조사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원대학교 응급구조과 4학년 재학생 3명이 오는 7월 27일까지 고창119안전센터 구급차에서 동승실습에 참여한다.

실습은 고창119안전센터에서 실습교육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실습생들은 구급대와 함께 현장 활동에 참여하면서 △응급환자 평가 및 처치 등 구급활동 보조 △응급환자 이송 시 주의사항 및 구급기자재 사용법 △구급대 업무에 대한 이해 △보호정비 착용과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교육 △그 밖의 구급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는다.

또한 실습 종료 후에는 실습교육담당자(멘토)가 실습생의 현장 적용력과 실무능력 등을 직접 평가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기업 협업 성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 15년간 스타트업 육성·지원순환·상생협력 결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로 높이 평가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적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센터에서 열린 '2026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포상은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년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다양한 협업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스타트업 육성, 지원순환, 상생협력 등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스타트업 육성 분야에서는 2024년부터 국민연금 금 사내벤처 1호 기업인 (주)스타트플리오와 함께 추진 중인 'K-혁신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 꼽혔다. 이 사업은 민·관·학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순환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 가나안근로복지재단과 협력해 전국 지사와 본부에서 발생하는 폐터너 카트리지를 기부하고 이를 재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 창출과 친환경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그린 잡(Green Job)'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NPS 카페 36.5°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통해 마을기업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지역 고령층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모델을 구축해 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매월 '연금'이네 장터를 운영하며 공단 시설을 지역기업에 개방해 농·특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장수경찰서, 승진임용식 개최... 경감 6명 승진

장수경찰서(서장 이여정)는 1일,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동료 직원 및 승진대상자(6명)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예로운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승진임용식에서는 △장무과 김용현, 양동모 △장수파출소 황의지, 윤선중 △장계파출소 이해선, 손영근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영예로운 승진을 했다.

승진자들은 동료들의 축하 속에 계급장을 부착하며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승진자와 참석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되어, 한층 더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여정 경찰서장은 "영예로운 승진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 계급 높여져 책임감 무거워진 만큼,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군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장수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자봉센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업사이클링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가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한 신규 공모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사업은 6월 12일 시작하여 30일(총 6회)동안 행복한 손놀이 재봉틀 자원봉사단(회장 김영란) 회원들이 참여, 행복한 가게에서 순환되지 않는 청바지를 활용하여 옷감을 재단하고 디자인하여 발매트(80개)를 업사이클링 하였다. 또한 버려지는 현수막을 회수하여 시장기방(100개)을 만들어 장수관내 취약계층에게 함께 나눔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성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배후마을 행복나눔 서비스 시작

### 남성요리교실 연계 전문강사와 만든 밀반찬 관내 50가구에 전달

임실군은 성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역량강화사업 배후마을 프로그램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밀반찬 등을 전달하고, 돌보는 행복나눔 서비스를 진행했다.

최근 진행된 성수면 행복나눔 서비스는 성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원회와 성수면 남성요리교실을 연계하여, 주민교육을 통해 전문강사와 함께 실습한 밀반찬을 관내 21개 배후마을(50가구에) 전달했다.

남성 요리교실은 지역 내 고령자 및 1인 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 어르신들이 함께 요리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고립감 완화 및 균형적인 식생활 자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성수면 김평기 추진위원장은 "성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21개 배후마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문화·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주민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문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필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 공급거점시설인 성수면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거점지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배후마을 주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7년 사업 준공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수면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과 배후마을 문화 전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한 변화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지역활성화가 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 김제 진봉면 지사협, 직접 만든 밀반찬 나눔 추진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운영)가 지난날 30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밀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성을 담아 밀반찬(파리고추말치조림), 완성된 반찬은 지역 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됐다.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 준비와 조리 참여하며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했다. 이를 통해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제=곽태 기자

### 정읍경찰서, 2026년 승진자 7명 승진임용식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지난날 30일 경찰서 3층 두층 산실에서 26년 승진자 7명에 대한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2026년도 승진임용의 영예를 누린 대상자들은 △수사과 이경열 경감 △수사과 임진호 경감 △삼동지구대 전미경 경감 △수사과 이정범 경감 △교통과 황미정 경감 △역전지구대 김대범 경감 △여성청소년과 김연화 경감 총 7명이다.

승진자 중 임진호 경감은 "승진은 많은 분들이 도와준 덕분이니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8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000
	익산지사 65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궁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궁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